

2025

KSSB

제 2호(기후 관련 공시사항)
Pilot Report



보고서 개요

본 보고서는 한국회계기준원 산하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orea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이하 'KSSB')가 2026 년에 제정한 KSSB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서 제 2 호 '기후 관련 공시사항'을 준용하여 작성된 예비 보고서입니다. SK 증권은 기후변화가 단순한 환경 이슈를 넘어 기업의 재무적 성과와 장기적 지속가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임을 인식하고,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대응 현황을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자 본 보고서를 발간합니다. 본 보고서는 거버넌스, 전략, 위험 관리, 지표 및 목표의 4 개 영역에 걸쳐 SK 증권의 기후변화 대응 체계와 성과를 종합적으로 제시합니다.

보고 기업 및 범위

본 보고서는 SK 증권 및 연결대상 종속기업인 에스케이에스프라이빗에쿼티, 엠에스상호저축은행(이하 SK 증권과 연결대상 종속기업을 통칭하여 '보고기업'이라 칭함)의 기후 관련 재무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고 기준

본 보고서는 KSSB 가 제정한 KSSB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서 제 2 호 '기후 관련 공시사항'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보고서에 수록된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작성에 사용된 데이터 및 가정은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사용된 정보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고 기간

본 보고서는 2025 년 1 월 1 일부터 2025 년 12 월 31 일까지의 정보를 중심으로 작성되었으며, 비교정보 제공 및 기후 관련 위험·기회 분석을 위해 과거 기간 정보와 중장기 전망 정보를 일부 포함하고 있습니다.

표시 통화

본 보고서의 표시 통화는 대한민국 원화(KRW)이며, 별도 표기가 없는 경우 금액 단위는 억 원입니다. 이는 SK 증권의 연결재무제표와 동일한 통화 및 단위 기준을 따릅니다.

제한사항

본 보고서는 보고기업의 미래 예측 가정에 기반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미래 예측 진술은 작성 시점의 합리적인 가정과 추정에 근거하고 있으나, 기후 관련 규제 변화, 탄소가격 경로의 불확실성, 거시경제 환경 변화 등 다양한 외부 요인에 따라 실제 결과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고기업은 보고서 작성 이후 발생하는 사건 및 상황을 반영하여 미래 예측 진술을 수정·공개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 본 보고서의 정보가 변경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 및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판단, 불확실성 및 오류

보고기업은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주요 판단을 수행하였으며, 측정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의 식별

보고기업은 가치사슬 전반에서 단기·중기·장기에 걸쳐 기업 전망에 합리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식별하는 과정에서 경영진의 판단을 적용하였으며, 당 보고기간 중 기업 전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지속가능성 관련 주제로 '기후'를 식별하였습니다. 보고기업은 중요한 사건이나 상황 변화 발생 시 해당 범위를 재검토합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보고기업은 온실가스 배출 보고를 위한 조직경계 설정 시 운영통제 접근법을 적용하였습니다. 금융배출량(Scope 3 카테고리 15)은 PCAF(Partnership for Carbon Accounting Financials, 탄소회계금융협회) 방법론에 따라 산정하였으며, 데이터의 가용성과 품질에 따라 각 범주에 적합한 계산 방법을 적용하였습니다.

측정 불확실성

본 보고서에 포함된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중 일부는 직접 측정이 불가능하여 추정에 의존하고 있으며, 기후 시나리오 분석의 경우 온도 상승 경로, 탄소가격, 정책 시행 시기 등에 대한 가정을 전제로 합니다. 보고기업은 보고일 기준으로 이용 가능한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였으나, 시장 변화 등 통제 불가능한 요인으로 인해 실제 결과가 추정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

목차

1. 거버넌스.....	5	2.5 기후 회복력.....	21
1.1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 관리·감독 의사결정 기구.....	5	2.5.1 기후 회복력 평가.....	21
1.1.1 의사결정기구의 책임 및 위임 사항.....	5	2.5.2 기후 관련 시나리오 분석 수행 방법..	23
1.1.2 의사결정기구의 역량 및 향후 개발 계 획	6	3. 위험 관리	25
1.1.3 의사결정기구에 대한 보고 방법 및 빈 도	6	3.1.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 관리.....	25
1.1.4 주요 의사결정 및 관리·감독 시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고려하는 방식.....	7	3.1.1 기후 관련 위험 관리 프로세스 및 정책	25
1.1.5 목표 설정 및 진척도 모니터링 방식	7	3.1.2 기후 관련 기회 관리 프로세스.....	26
1.2 경영진의 관리·감독 역할	8	3.1.3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 관리 프로세스 와 전사적 위험 관리 프로세스의 통합	26
1.2.1 경영진에 대한 역할 위임 및 감독 방법	8	4. 지표 및 목표	27
1.2.2 경영진의 통제 및 절차.....	8	4.1 기후 관련 지표	27
2. 전략.....	9	4.1.1 온실가스 배출량.....	27
2.1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	9	4.1.2 기후 관련 위험에 취약한 자산 또는 사 업활동	31
2.1.1 위험 및 기회 식별.....	9	4.1.3 기후 관련 기회에 부합하는 자산 또는 사업활동	31
2.1.2 식별된 위험 및 기회의 영향 발생기간 과 전략적 의사결정 계획기간 간의 연계	10	4.1.4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비한 자본 배치.....	32
2.2 사업모형 및 가치사슬	11	4.1.5 내부 탄소 가격.....	32
2.2.1 현재 및 예상 영향.....	11	4.1.6 기후 연계 보상.....	32
2.2.2 집중된 영향	16	4.2 기후 관련 목표	33
2.3 전략 및 의사결정.....	16	4.2.1 기후 목표 관련 정보.....	33
2.3.1 위험 및 기회에 대한 대응	16	4.2.2 기후 목표 설정 및 모니터링 방법	34
2.3.2 대응 전략 실행을 위한 자원 조달 계획	19	4.2.3 기후 목표 대비 성과 정보.....	34
2.3.3 기 공시된 계획의 진척도	19	4.2.4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 관련 정보	34
2.4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	20	4.2.5 탄소 크레딧 사용 계획	35
2.4.1 현재 재무적 영향	20	Appendix. 제3자 검증 의견서.....	36
2.4.2 예상 재무적 영향	21	Appendix. SK증권 기후 관련 이니셔티브 참여 현황.....	38

1. 거버넌스

1.1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 관리·감독 의사결정기구

1.1.1 의사결정기구의 책임 및 위임 사항

보고기업의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관한 거버넌스 체계는 ESG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ESG위원회는 기후변화 및 생물다양성을 포함한 전사 ESG 경영전략의 수립·이행과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이사회 산하 최고 의사결정기구입니다. 지속가능경영부는 ESG위원회의 운영과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전담 조직으로서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분석, 정책 수립 및 공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사적 실행력 강화를 위해 ESG Specialist Group을 운영하며, ESG 관련 정책과 과제의 이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고기업은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하고, ESG 경영전략의 실행력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의사결정기구 관리·감독 역할 및 권한

구분	내용
구성 및 기능	·ESG위원회 가) ESG 경영전략 수립 나) ESG 경영전략 이행 관리 및 감독 다) 그 외 ESG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의결 ·지속가능경영부 가) ESG 관련 정책 사안 보고 나) ESG 관련 교육 및 추진과제 협업 ·ESG Specialist Group 가) ESG 관련 정책 사안 교육 및 전문가 육성
ESG위원회 규정 제정일	2023.03.31

ESG위원회 인력 현황(2025.12.31 기준)

보고기업은 최고경영자인 대표이사가 ESG 경영 전반을 총괄하고 있으며, 이사회 산하 ESG위원회를 중심으로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SG위원회는 사내이사 1명과 독립이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독립성 강화를 위해 독립이사 비중을 과반(67%) 이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구분	성명	직책	최초 선임일	성별	주요 경력	담당위원회
독립이사	박정림 ¹⁾	위원장	2024.03.25	여	·KB금융지주 총괄부문장 겸 KB증권 대표이사 사장 ·KB금융지주 자본시장부문장 겸 KB증권 대표이사 사장 ·KB금융지주 WM총괄 부사장 겸 KB국민은행 WM그룹 부행장 ·KB금융지주 리스크관리책임자 부사장	·ESG위원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
독립이사	고광철	위원	2025.03.27	남	·SBS Biz <경제현장 오늘> 진행자(現) ·한경BP 및 한경닷컴 대표이사 ·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	·ESG위원회 ·보수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사내이사	전우중	위원	2022.03.24	남	·SK증권 대표이사(現) ·SK증권 경영지원부문장 ·SK증권 리스크 관리 실장 ·SK증권 리서치센터장	·ESG위원회 ·보수위원회

1) 기준일 이후 사임

1.1.2 의사결정기구의 역량 및 향후 개발 계획

보고기업은 이사 선임 시 금융, 경영, 법률 및 리스크 관리, ESG 및 소비자보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 및 실무경험을 보유한 후보를 선정하여 전문성 관점의 다양성을 확보합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로 이사회 역량구성표를 활용하고 있으며, 평가 항목 내 기후 관련 전문성·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요소를 포함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이사가 선임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역량구성표

구분		사내이사		독립이사				기타비상무이사
		전우종	정준호	고광철	김대홍	전성기	박정림	장욱제
ESG위원회 해당 여부		●		●			●	
역량 지표	금융	●	●	●	●	●	●	●
	경영	●	●	●	●	●	●	●
	법률 및 리스크	●	●		●		●	
	재무, 회계, M&A	●	●			●	●	●
	ESG 및 소비자보호	●	●	●			●	●

이사회 교육 내역 및 역량 개발 계획

일자	대상	주요 교육 내용
2025.12.29.	독립이사 전원	ESG 공시 및 거버넌스 트렌드

기후변화 대응과 생물다양성 이슈 관련 관리·감독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가능경영부를 중심으로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사회 대상의 외부 전문가 특강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1.3 의사결정기구에 대한 보고 방법 및 빈도

보고기업은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ESG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ESG위원회는 반기 1회 이상 정기 개최되며, 필요 시 수시로 소집됩니다. 주요 보고 및 심의 사항으로는 ESG 경영 추진 현황, 중대 이슈 선정, 금융배출량 산출 및 기후 위험 분석 결과,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등이 포함됩니다. 2025년에는 총 3차례의 ESG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기후·환경 관련 5건의 안건이 심의되었습니다.

개최일자	주요 안건	결의/보고	참석률
2025.03.05.	제1호 의안: 2025년 ESG 경영 추진 전략 및 계획 승인 - 이중 중대성 평가, 인권영향평가 기반 중대이슈 도출 및 개선과제 발굴 - SDGs Impact 분석 및 관리체계 구축	결의	75%
2025.06.27.	제1호 의안: 이중 중대성 평가 결과 보고, 중대 이슈 관리 제2호 의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2025년 감축 목표 승인 제3호 의안: 생물다양성 의존도와 영향분석 경로 및 향후 과제 승인 -생태계 서비스에 대한 종합 의존도는 '중간', 종합 영향도는 '낮음' 수준으로 평가됨	결의	100%
2025.12.29.	제1호 의안: 2025년 중대 이슈 관리 현황 및 2026년 중대 이슈 유지 승인	결의	100%

또한, CEO가 ESG 업무책임자로 지정한 지속가능경영부 집행임원은 기후 관련 주요 안건을 보고하고, 이사회의 관련 의사결정의 실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분	이사회	ESG위원회
보고 주체	ESG위원회	지속가능경영부(간사)
보고 내용	기후변화 대응을 포함한 ESG 전략 및 활동에 대한 관리·감독 사항	ESG 경영 관련 실무 전반
보고 빈도 및 시기	반기별 1회 이상(필요시 수시)	연 3회 이상(필요시 수시)

1.1.4 주요 의사결정 및 관리·감독 시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고려하는 방식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 관점을 고려하는 방식

보고기업은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의사결정 프로세스에 반영하고 있으며,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가 기업의 전략과 재무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이사회 산하 ESG위원회와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기후 관련 의사결정 및 감독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SG위원회는 기후변화 대응을 포함한 지속가능경영 전반의 전략 수립 및 주요 추진 과제 이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심의·의결하며, 기후 관련 이슈가 경영전략, 지배구조, 기업 책임 전반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합니다. 지속가능경영부는 기후 관련 위험·기회 분석 결과 및 ESG KPI 성과를 ESG 위원회에 보고함으로써 경영진 차원의 의사결정을 지원합니다. 리스크관리위원회는 기후 관련 위험을 포함한 전사 리스크 체계를 검토하고, 주요 현안에 대해 보고를 바탕으로 이사회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와의 상충 고려

보고기업은 기후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서 위험과 기회 간의 절충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탈석탄 투자지침 및 ESG Checklist를 통해 탄소집약 산업에 대한 투자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하고, K-Taxonomy 기반의 녹색금융상품 집계 체계를 운영함으로써 저탄소 전환에 따른 신규 비즈니스 기회를 전략적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단기적인 수익 기반 조정에 따른 영업상 제약이 수반되더라도, 중장기적 포트폴리오 건전성 확보와 고객·투자자의 신뢰 제고를 위해 기후 관련 위험 관리를 전략적 의사결정에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구분	위험 요소	기회 요소	절충 고려사항
이행 위험	저탄소 경제 전환으로 인한 정책 및 법률 위험, 평판 위험, 시장 변수 위험 등	K-Taxonomy 기반 녹색금융상품 확대, ESG 투자자문 등 신규 시장 성장	탈석탄 투자지침 이행으로 단기 수익 축소를 감수하고 녹색금융 확대를 통한 비즈니스 확장의 전략적 전환점으로 활용
물리적 위험	기후변화로 인한 급성 위험, 장기적 기후 패턴 변화로 인한 만성 위험	기후 위험 관리 역량 강화에 따른 이해관계자 신뢰도 제고 및 지속가능 경영 경쟁력 강화	단기 관리 비용 증가보다 장기적 기업가치 제고 효과를 우선적으로 고려

1.1.5 목표 설정 및 진척도 모니터링 방식

보고기업은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탄소중립 목표 관리와 환경경영 이행계획의 수립 및 모니터링을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ESG위원회는 탄소중립 목표 수립, 환경경영 이행계획 관리 및 목표 달성 점검 등 기후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이사회 산하 위원회로서, 기후변화 대응 관련 주요 추진 현황과 성과를 정기적으로 보고받아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실무 차원에서는 지속가능경영부가 환경경영 관련 정책 및 목표 이행 현황을 ESG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함으로써 목표 진척도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고기업은 기후변화를 경영의 핵심 리스크이자 새로운 사업 기회로 인식하고, 이를 경영진의 책임과 역할에 반영하기 위해 전사 핵심성과지표(KPI) 체계에 기후 관련 성과지표를 단계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공시 인프라와 거버넌스 체계 구축에 집중하였으며, 2026년부터는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포함한 기후 관련 성과지표를 경영진 KPI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탄소배출량 감축목표는 과학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SBTi) 승인을 기반으로 국제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경영진 성과지표 및 보상 정책

구분	내용
관련 보수 규정	· CEO 및 임원 성과보수는 이사회를 통해 결정함(성과급 기준의 신설·변경·폐지 포함) - CEO 성과보수는 회사의 전략과제(KPI) 달성 수준과 재무성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 임원 성과보수는 담당조직의 KPI 성과를 기반으로 하되, 회사의 재무적 성과를 30% 이상 반영함
기후변화 관련 보수연계 성과지표	· (2025년) ESG 공시역량 강화(10점):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7점), 책무구조도 도입(3점) · (2026년) ESG 역량 강화(10점):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5점), 탄소배출량 감축*(5점) * Scope 1·2·3의 SBTi 감축목표 달성률을 충족해야 하며, 직·간접배출 및 금융배출량까지 경영진의 책임범위에 포함하고 있음
해당 인력	· CEO 및 C-level 임원

1.2 경영진의 관리·감독 역할

1.2.1 경영진에 대한 역할 위임 및 감독 방법

보고기업은 기후변화 대응을 포함한 ESG 경영 전반에 관한 역할을 경영진에 위임하고, 그 이행 과정과 성과를 체계적으로 감독하고 있습니다. ESG위원회는 기후변화 대응 관련 주요 전략과 추진 방향을 심의·의결하는 이사회 산하 위원회로서, 기후 관련 주요 이슈를 검토하고 경영진의 실행 활동을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ESG위원회에서 수립한 기후 대응 전략에 따라, 지속가능경영부는 실무 차원의 이행을 주도하며 주요 위험 및 기회 요인을 분석하고 그 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합니다. ESG위원회는 이러한 보고를 기반으로 목표 이행 수준과 성과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감독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후 관련 전략 목표의 진척도는 전사 ESG KPI 체계를 통해 경영진에 보고되며, 경영진은 이를 바탕으로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목표 대비 미흡한 영역에 대한 개선 방향을 수립합니다. 아울러, 기후 관련 성과지표는 경영진의 성과 평가 및 보상 체계에 연계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기후 관련 목표의 실행력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1.2.2 경영진의 통제 및 절차

보고기업은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경영진의 체계적인 감독을 지원하기 위해 기후 위험 관리를 전사 내부통제체계와 연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책무구조도 운영지침'과 부서별 책무관리 매뉴얼을 통해 ESG 및 환경경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사내 환경경영성과평가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환경경영 활동 및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과 개선조치가 연 1회 이상 수행됩니다. 점검 결과는 대표이사에게 보고되며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개선계획 수립이 의무화되어 기후 위험 관리의 실행력과 책임성이 제도적으로 확보되고 있습니다. 또한 조직관리규정 시행규칙을 통해 지속가능경영부의 역할과 책임을 명문화하고 있으며, 지속가능경영부를 중심으로 ESG 기준 설정, 전략 및 KPI 관리, 데이터 거버넌스와 공시 대응을 통합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기후 관련 위험·기회에 대한 경영진의 감독 절차가 전략 기획, 위험 관리, 공시 등 다양한 내부 기능과 유기적으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2. 전략

2.1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

2.1.1 위험 및 기회 식별

보고기업은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를 식별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유형별로 구분하여 평가하였습니다. 기후 관련 위험은 물리적 위험과 이행 위험으로 구분하였으며, 물리적 위험은 급성과 만성으로, 이행 위험은 정책 및 법률, 기술, 시장, 평판의 네 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하였습니다. 또한 기후 관련 기회는 자원 효율성, 에너지 자원, 상품 및 서비스, 시장, 회복 탄력성의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주요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 요인

구분	유형		설명	포함 범위	
				지배회사	종속회사
위험	물리	급성	· 기후변화로 인한 태풍, 집중호우 등 극한 기상현상의 빈도 및 강도 증가로 자산 훼손과 영업 중단이 발생하고, 재무적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위험	●	●
		만성	· 기온 상승, 강수 패턴 변화 등 장기적인 기후변화가 자원 접근성 저하, 자산 가치 하락 및 수익 구조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	●
	이행	정책 및 법률	· 탄소 규제 강화, 환경 관련 공시 의무 확대 등 정책 및 법적 요구사항의 변화로 인한 비용 증가 및 사업·투자 활동의 제약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	●
		기술	· 저탄소 및 친환경 기술로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투자비용의 증가, 기술 상용화 지연 또는 적용 실패로 인한 성과 저하 위험	●	●
		시장	· 산업 구조 재편 및 수요 변화에 따라 기존 제품·서비스 및 투자 자산의 가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위험	●	●
		평판	·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기업 이미지, 이해관계자 신뢰, 고객 선호도가 저하될 수 있는 위험	●	●
기회	자원 효율성		· 에너지 및 자원 사용 효율 개선을 통해 운영비용 절감과 자산 가치 및 수익성 제고가 가능한 기회	●	●
	에너지 자원		· 재생에너지 및 저탄소 에너지로의 전환을 통해 에너지 가격 변동 리스크 완화 및 신규 사업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	●	●
	상품 및 서비스		· 친환경 및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 따른 수요 변화에 대응하여 신규 금융 상품 및 서비스 개발이 가능한 기회	●	●
	시장		·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기술 산업의 성장에 따른 시장 확대 및 사업 다각화 기회	●	●
	회복 탄력성		· 기후 위험 관리 역량 강화 및 대응 체계 구축을 통해 사업 연속성 확보와 장기적인 지속가능성 제고가 가능한 기회	●	●

2.1.2 식별된 위험 및 기회의 영향 발생기간과 전략적 의사결정 계획기간 간의 연계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의 기간 분석

보고기업은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가 실현되는 시점과 영향의 정도가 상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영향 발생 기간을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습니다. 기간의 기준은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가 제정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서 제2호: 기후 관련 공시사항」에 근거하여, 단기(1년 이내), 중기(1년 초과 5년 이내), 장기(5년 초과)로 설정하였습니다.

위험 영향 기간 분석

물리적 위험 중 급성 위험은 단기적으로 발생 가능성이 높고 중기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반면, 만성 위험은 중·장기적으로 점진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이행 위험 중 정책 및 법률 위험은 단기부터 장기까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기술, 시장, 평판 위험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 포트폴리오 및 시장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구분	유형	위험 요인	예상 기간 범위		
			단기	중기	장기
물리적 위험	급성	기후변화로 인한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빈도 및 강도 증가에 따른 투자 자산 손실 및 운영 차질 발생	●	●	
	만성	평균 기온 및 해수면 상승 등 장기적 기후변화에 따른 자산 가치 하락 및 투자 리스크 증가		●	●
이행 위험	정책 및 법률	환경 규제 강화, 탄소가격 변동, 공시 의무 확대 및 녹색 분류체계 도입에 따른 운영비용 증가와 투자 부담 확대	●	●	●
	기술	친환경 신기술 개발 및 전환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투자 리스크 증가		●	●
	시장	전환 대상 산업군의 수익 감소 및 투자자 자금 회수에 따른 시장 변동성 확대		●	●
	평판	기후변화 대응 미흡으로 인한 투자 대상 기업 및 프로젝트의 평판 위험 증가		●	●

기회 영향 기간 분석

자원 효율성 및 에너지 자원 유형의 경우, 기술 발전과 인프라 확산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기회 요인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품 및 서비스 유형의 경우, 친환경 금융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다양한 금융 상품의 출시로 인해 포트폴리오가 다각화됨에 따라 단기부터 장기까지 지속적인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시장 유형의 경우, 재생에너지·친환경 인프라 관련 시장이 성장하여 IB 자문 및 주선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회복 탄력성 유형의 경우, 기후 위험 대응 역량이 강화됨에 따라 투자 대상의 중·장기적 안정성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유형	기회 요인	예상 기간 범위		
		단기	중기	장기
자원 효율성	에너지·자원 효율 개선 및 친환경 건물 확대에 따른 운영비 절감과 친환경 자산 가치의 상승		●	●
에너지 자원	저탄소 기술의 발전으로 화석연료 가격 상승 리스크 완화 및 재생에너지 인프라 투자 기회 확대		●	●
상품 및 서비스	친환경 상품 수요 증가 및 재생에너지 관련 투자, ESG 금융 상품 확대로 포트폴리오 다각화	●	●	●
시장	재생에너지 및 친환경 인프라 시장 성장에 따른 IB 자문·주선 확대		●	●
회복 탄력성	기후 위험 대응 역량 강화와 회복 탄력성 증가로 인한 투자 대상의 장기적인 사업 안정성 증가 및 지속가능성 제고	●	●	●

식별된 위험 및 기회의 영향 발생기간과 전략적 의사결정 계획기간의 연계

보고기업은 기간의 설정을 사업전략 의사결정에 활용되는 계획기간과 연계하여,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의 식별이 사업 전략 수립 과정에 반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후 요소를 경영 및 투자 의사결정 체계에 내재화하고 있습니다.

구분	단기	중기	장기
기후변화 영향 예상 기간 범위	1년 이내	1년 초과 5년 이내	5년 초과
사업 전략 의사결정 계획기간	1년 이내	1년 초과 5년 이내	5년 초과

2.2 사업모형 및 가치사슬

2.2.1 현재 및 예상 영향

보고기업은 금융투자회사로서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및 신탁업 등을 운영하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중개, 자문 및 운용, 신탁 자산 관리 등 다양한 금융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 구조는 기후변화에 따른 물리적 위험, 이행 위험, 기후 관련 기회에 의해 투자 포트폴리오 및 금융활동 전반이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가 사업모형에 미치는 영향

보고기업의 사업분야는 IB(기업금융)·자기매매, 위탁매매, 저축은행으로 구분됩니다. 각 사업분야에 미치는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 요인과 핵심 영향을, 각 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인 단기(1년 이내), 중기(1년 초과 5년 이내), 장기(5년 초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습니다.

IB·자기매매

부문	유형	핵심 요인	핵심 영향
IB	이행 위험	탄소집약 섹터 딜 참여(석유·철강·시멘트 등)	[단기] ESG 스크리닝 부재 시 딜 실패·수수료 손실 [중기] 그린워싱 및 환경 관련 규제 위반에 따른 소송 리스크 증가
	이행 위험	그린워싱 리스크(ESG 상품 구조화)	[단기] 당국 검증 강화로 인한 평판·법적 손실 및 상품 설계비 상승 [중기], [장기] ESG 관련 법적 분쟁 발생 시 소송 비용 및 평판 위험 확대
	기회	녹색채권·SLB 인수·주선, BESS(배터리 에너지 저장장치), SMR(소형모듈원전), 데이터센터 등 에너지·전력·인프라 전환금융 PF 확대	[단기] 녹색채권 주선 수익 창출 [중기] 전환금융 PF 전문성 축적을 통한 경쟁력 확보
	기회	녹색기후기금(GCF) 활용 확대	[단기] GCF 인증 기반 수익 창출 및 레퍼런스 확보 [장기] 기후변화 감축 및 적응 지원사업 참여 기회 확대
	기회	기후테크·친환경 혁신기업 대상 신기술사업금융 투자	[단기] 기후테크 초기·성장기업 투자를 통한 수익 창출 [중기] 후속 투자(Follow-on) 및 스케일업 지원을 통한 투자 포트폴리오 다각화

부문	유형	핵심 요인	핵심 영향
자기매매	이행 위험	고탄소 보유자산 좌초자산화 (Stranded Asset)	[단기] 화석연료株 변동성 확대로 운용손익 리스크 [중기], [장기] 좌초자산으로 인한 재무적 손실 발생
	물리적 위험	극단적 기상이변으로 인한 에너지·농산물 가격 급변	[단기] 파생상품 마진콜 리스크 [장기] 포트폴리오 분산효과 약화
	기회	탄소배출권(KAU)·탄소크레딧 연계 파생상품	[중기] ELS·DLS 라인업 확장 및 자발적 탄소시장 진입에 따른 수익 확대 [장기] VCM 트레이딩 수익
IB, 자기매매	기회	저탄소 및 재생에너지 활용 비중 확대	[장기] 전력시장 구조변화로 인한 관련 중개서비스 수요 확대
	기회	고탄소 업종에 대한 낮은 익스포저	[단기] 이행 위험 대비 포트폴리오 손실 최소화 [중기] ESG 등급 향상 및 투자자 신뢰 확보

위탁매매·저축은행

부문	유형	핵심 요인	핵심 영향
위탁매매	이행 위험	ESG 펀드·ETF 수요 증가, 고탄소 상품 외면	[단기] ESG 라인업 미흡 시 고객 이탈·수수료 기반 약화
	물리적 위험	기상이변 후 시장 변동성·투자심리 위축	[중기] 거래 급감으로 수수료 단기 감소·수익 변동성 확대
	기회	ESG 랩어카운트·신탁·탄소중립 컨설팅	[단기] 운용보수 증가 [중기] 자산관리 수수료 프리미엄
	기회	녹색금융 및 저탄소 상품에 대한 고객 수요 증가	[중기] 저탄소 녹색금융상품 중개 및 자문 수수료 수익 증가
	기회	탄소시장(K-ETS) 거래 중개	[중기], [장기] 탄소배출권 시장 성장(배출권 가격 상승, 자발적 탄소시장 개설) 시 신규 중개 비즈니스가 창출됨에 따라 자기매매 및 위탁매매 양면의 기회 발굴
저축은행	이행 위험	탄소집약 중소기업 차주 신용 약화	[장기] 고탄소 차주 연체율 상승·대손충당금 부담
	물리적 위험	기후취약 지역 담보(부동산) 가치 하락	[중기] LTV 재평가로 여신건전성 저하 [장기] 차주 동반 부실
	기회	녹색 SME 대출·에너지효율 리모델링 대출	[중기] 정책금융 연계 이자이익 신규·개인금융 다양화

공통

영역	유형	핵심 요인	핵심 영향
공시	이행 위험	TCFD·ISSB(IFRS S2) 기후공시 의무화	[단기] 공시체계 미비 시 제재·신뢰 하락 [중기] Scope 3 대응 비용 증가
리스크	이행 위험	기후 시나리오 분석·스트레스 테스트 부재	[단기] 금융 감독 기관 압력 증가 [중기] 자본 적정성 평가 불이익
전사 전략	기회	탄소중립 로드맵·ESG 등급 향상	[중기] 자금조달 여건 개선 [장기] 글로벌 그린파이낸스 딜 확대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가 가치사슬에 미치는 영향

증권업의 가치사슬은 자체 자금조달·인적자원·IT 인프라 등이 상류(Upstream)에 속하며, 금융자산·자문 서비스를 통한 사회적 자본배분이 하류(Downstream)에 속합니다. 따라서 보고기업의 기후 노출은 운영 자체보다는 상·하류 가치사슬, 특히 하류에 해당하는 금융배출량에서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Upstream(상류 가치사슬) 영향 분석

보고기업은 전자단기사채(STB)와 기업어음(CP), 환매조건부채권(RP)이 핵심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단기 자금 시장은 가장 먼저 경색되는 영역입니다. 기관투자자의 ESG 스크리닝이 강화되면, 시장 변동성 확대 시 “ESG 등급 미달 발행자”의 단기물부터 매입을 보류하게 되며 이는 차환 가능성을 가르는 결정적인 변수가 됩니다. 보고기업이 KPI에 ESG 역량 강화를 반영함으로써, 기후 ESG 평가가 신용등급에 통합되는 흐름에 빠르게 대응하여 장기적으로 자금조달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영역	유형	핵심 요인	핵심 영향
자체 자금조달	이행 위험	기후 위험 발생 시 단기물 차환 위험	시장 스트레스 하에서 STB·CP·RP의 만기 도래 시 신규 발행이 막히거나 금리가 급등하여 유동성 압박 발생
	이행 위험	회사채 스프레드 영향	회사채·후순위채 발행 시 동일 신용등급 대비 추가가산금리(스프레드)가 적용되어 조달비용 구조적 상승
	기회	녹색채권·SLB 발행	녹색채권·SLB 발행 시 일반채 대비 그리니엄(greenium) 확보, 발행 레퍼런스 확보
	기회	SBTi 감축 목표 달성	SLB 발행을 통한 조달비용 차별화, KPI-Linked 구조의 자체 발행 가능
	기회	탈탄소 우위 금융기관 지위 확립	글로벌 ESG 투자자의 관심 확대, 조달비용 구조적 우위 확보
인적자원	물리적 위험	폭염, 한파, 홍수, 태풍 등 기상이변 피해	지점 접근 차단으로 인한 출근 불능, 누적된 건강·생산성 저하, 거주 적합성 변화, 인재 유치 환경 악화 등
	기회	전환금융 구조화 역량 확보	기후금융이 표준화되며 별도 ESG 인력 프리미엄은 완화되나, 전환금융 구조화 역량이 IB 핵심 차별화 요소로 정착
IT 인프라	물리적 위험	기상이변으로 인한 데이터센터 피해	폭염·호우로 인한 시스템 장애 및 인프라 이중화 투자 증가
	기회	에너지 효율성 향상,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업무 최적화	에너지 소비 절감을 통한 운영비용 감소
본사 및 영업점	물리적 위험	기상이변으로 인한 사무실 피해	만성 물리적 위험(평균기온 상승, 해수면 상승)으로 일부 지역 영업거점의 입지 재검토 필요성 증가

Downstream(하류 가치사슬) 영향 분석

기후 위험은 금융자산에, 기회는 자문서비스에 비대칭적으로 집중될 수 있습니다. 금융자산은 보유에 따른 좌초자산·평가손실·물리적 손상 등 직접적 손실 위험이 큼니다. 반면 자문서비스는 자산을 보유하지 않으므로 직접 손실은 적고, 대신 새로운 수익원으로서의 전환 기회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고기업은 금융자산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자문서비스의 사업기회를 확대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역	유형	핵심 요인	핵심 영향
금융 자산	이행 위험	탄소배출권 가격 상승	[채권·대출] 고배출 발행자·차주 영업이익 압박으로 인한 신용위험 확대 [주식] 고배출 기업 영업이익 압박으로 인한 기업가치 하락, EXIT 단계에서 디스카운트 발생
	이행 위험	준정부 발행자(공기업)의 탈탄소 전환 부담	한전·발전 공기업의 신용스프레드 확대, 보유 채권 가치 하락 (준정부 단일 영역에서 전체 금융배출량의 42.9% 집중)
	물리적 위험	차주 사업장 손상	중소·중견 차주의 경우 회복력 취약으로 인한 신용위험 확대
	물리적 위험	인프라 기초자산의 물리적 손상	인프라 ABS의 기초자산 손상 시 현금흐름 차질
	기회	공기업 녹색채권 확대	안전 자산과 탈탄소를 동시 충족하는 자산 공급에 따른 포트폴리오의 탈탄소화
	기회	그린·임팩트 PE 투자	재생에너지 및 임팩트 관련 PE 투자를 통한 탄소집약도 개선 및 수익 확대
자문 서비스	이행 위험	탄소집약 섹터 딜 참여	석유·철강·시멘트 등 고탄소 섹터 IPO·회사채 주관 시 ESG 스크리닝 부재 시, 딜 실패 및 평판 손상
	이행 위험	촉진배출량(Facilitated Emissions) 가이드라인	향후 측정 의무화 시 IB 사업의 "탄소 회계상 비용" 가시화됨에 따라 신규 딜 의사결정 기준 변화
	물리적 위험	직접 영향 낮음	직접적 물리 위험 노출도 낮음
	기회	녹색채권·SLB 구조화 인수추진	한국 그린본드 시장 확대의 직접 수혜
	기회	전환금융·SLB 구조화 자문	보유한 구조화 노하우의 수익화를 바탕으로 전환 상품 설계 가능, 고탄소 산업 전환자금 조달 자문을 통한 철강·시멘트·정유 등 전환채 구조화
	기회	재생에너지·수소·CCUS·BESS	신재생에너지 중심 인프라 PF가 장기 IB 핵심 사업영역으로 부상
	기회	ESG·데이터 리서치 차별화	기후 통합 리서치, ESG 데이터 서비스 등 차별화된 부가서비스로 거래 점유율 확대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의 중요도 및 기간별 영향

보고기업은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의 발생 시점을 고려하여 이를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해 분석하였습니다. 이러한 분석은 일부 요인이 단기적 충격으로 나타나는 반면, 다른 요인은 중·장기적인 구조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반영한 것입니다. 또한 중요도 변수를 포함하여 각 위험 및 기회 요인의 영향 수준을 함께 평가하였습니다.

물리적 위험 중 급성 위험은 단기적인 자산 손실 및 운영 차질을 유발하는 반면, 만성 위험은 중·장기적으로 자산 가치 및 수익성에 구조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행 위험은 대부분 중·장기적으로 나타나지만, 정책 및 법률 위험은 단기부터 장기까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한편, 기회의 경우 상품 및 서비스 부문은 단기부터 지속적으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반면, 에너지 자원 및 시장 관련 기회는 시장 성장에 기반하여 중·장기적으로 중요성이 커지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 매우 중요, ①: 중요, ○: 보통

유형		핵심 요인 및 영향	중요도 및 기간별 영향		
			단기	중기	장기
물리적 위험	급성	- 투자 자산의 가치 저하 - 부동산의 담보가치 하락 - 투자 대상 자산의 물리적 피해 발생에 따른 자산 가치 하락 및 투자 손실 확대	●	①	
	만성	- 기후 패턴 변화로 인한 자원 가용성 저하 및 경제활동 둔화로 인한 투자 수익성 감소 - 자산 가치 하락으로 인한 포트폴리오 변동성 확대		①	●
이행 위험	정책 및 법률	- 환경 규제 강화에 따른 운영 비용 증가 - 고배출 업종 신규 투자 제한 - 그린워싱 관련 소송 증가 - 탄소배출권 가격 변동(K-ETS 및 EU-ETS) - 탄소배출량 공시 의무화 - 녹색 상품·서비스 규제 강화(K-Taxonomy, 녹색여신 관리지침, 전환금융 가이드라인 등) - 금융기관에 대한 기후 위험 관리 및 공시 규제 강화	①	●	●
	기술	친환경 신기술 전환 과정에서의 기술 불확실성에 따른 투자 성과의 변동 및 자산가치 변동 위험		①	①
	시장	- 투자자 자금 회수 및 시장 심리 위축에 따른 자산 가격 변동성 확대 - 전환 대상 산업군의 상품 및 서비스 수요 위축		①	●
	평판	- 투자 대상 기업 및 프로젝트의 환경 영향도 증가 - 기후변화 대응 미흡에 따른 평판 하락 및 투자자 신뢰 약화로 자금 유출 및 고객 이탈		①	①
기회	자원 효율성	- 에너지·자원 효율 개선에 따른 운영비 절감 - 친환경 건물 등 고정 자산의 가치 상승 - 친환경 투자 관련 정책 인센티브 혜택		①	○
	에너지 자원	- 화석 연료 가격 상승에 대한 노출 감소 - 저탄소 전환에 따른 관련 투자 기회 증가 및 안정적 수익 확보		①	●
	상품 및 서비스	- 친환경 금융상품 수요 증가 - 재생에너지 등 투자 포트폴리오 다각화	●	●	●
	시장	-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기술 관련 기업 수요 증가 - 임팩트 투자 시장 기회 및 장기 수익원 창출		①	①
	회복 탄력성	- 복원 계획을 통한 시장 가치 상승 - 회복 탄력성 관련 솔루션 및 서비스 수요 확대	①	●	●

2.2.2 집중된 영향

보고기업은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 요인에 대해 중요성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정량·정성 분석을 통해 재무 중대성과 영향 중대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중요성 평가 결과, 합리적으로 예상 가능하고 중대한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된 요인을 선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중요도 크기 - ●: 상 ◎: 중 ○: 하

구분	유형		중요도		
			단기	중기	장기
위험	물리	급성	●	◎	
		만성		◎	◎
	이행	정책 및 법률	◎	●	●
		기술		◎	◎
		시장		◎	●
		평판		◎	◎
기회	자원 효율성			◎	○
	에너지 자원			◎	●
	상품 및 서비스		●	●	●
	시장			◎	◎
	회복 탄력성		◎	●	●

2.3 전략 및 의사결정

2.3.1 위험 및 기회에 대한 대응

사업모형에 대한 현재 및 예상 변화

보고기업은 식별된 기후 관련 물리적 위험, 이행 위험 및 기회 요인이 전사 사업모형과 가치사슬에 즉각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에너지 전환 및 관련 규제·정책 환경의 변화는 증권업 전반에 걸쳐 중장기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판단하여, 이에 따른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는 경영 의사결정의 기본 전제로 내재화하는 방향으로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있으며, 고탄소 자산에 대한 노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기준에 기반한 녹색금융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것을 사업모형 차원의 전략적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기후 관련 정책 기조 및 시장 환경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IB·자기매매(Upstream), 위탁매매·저축은행(Downstream), 공시·리스크·IT 운영 등 공통 부문을 포괄하는 전사 사업 전략에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녹색금융 투자 규모와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증권사로서의 기후 대응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직접적 완화 및 적응을 위한 노력

구분	유형		현재 노력	예상 노력
위험	물리	급성	· 위기대응 TF 운영 및 재해복구(DR) 시스템 전환 훈련 실시 · 기후 시나리오 분석 기반 자연재해 노출도 평가 및 위치 기반 포트폴리오 조정	· 시나리오 기반 투자 전략 수립 및 물리적 위험 관리 강화
		만성	· 기후 시나리오를 활용한 장기 기후 패턴 변화에 따른 재무적 노출도 평가	· 포트폴리오 손상 가능성 모니터링 및 물리적 위험 관리 체계 고도화
	이행	정책 및 법률	· 탈석탄 투자지침 적용을 통한 신규 석탄화력발전 관련 여신 및 투자 배제 · 배출권 시장조성자 참여 및 탄소배출권 비용 관리	· 기후 규제 강화에 대응한 ESG 기반 포트폴리오 조정 및 상품 개발 확대
		기술	· 투자 심사 시 ESG 리스크 진단 반영 및 피투자기업 대상 저탄소 기술 인계이전먼트 전개	· 신재생에너지 및 기후 혁신기술 보유 기업 투자 확대
		시장	· 녹색금융상품 개발 집중	· 시나리오 기반 투자 전략 수립 및 ESG 평가 관리 고도화
		평판	· 탈석탄 선언 이행 및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강화	· 기후 회복력 전략 지속 추진을 통한 기업 평판 및 시장 신뢰도 제고
		회복 탄력성	· 고탄소 업종 익스포저 축소 및 위치 기반 자산 분산	· SBTi 목표 이행 기반 투자 전략 강화 및 녹색채권·Taxonomy 기반 투자자산 관리
기회	자원 효율성		· LED 조명 및 노후시설 교체 등 에너지 효율화 투자 집행	· 디지털 플랫폼 활용 업무 최적화를 통한 자원 소비 절감 및 운영비용 감소
	에너지 자원		· BESS, SMR, 데이터센터 등 에너지·전력·인프라 분야 전환금융 딜 수행 ·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인수, 주선 및 자문 수행	· 전환금융 딜 커버리지를 재생에너지·수소·CCUS 등으로 확대 · 잔여 배출량 대상 RE100 이행 수단 적극 참여
	상품 및 서비스		· 녹색채권·SLB 인수, 주선 및 전환금융 구조화 자문 수행 · K-Taxonomy 기준 부합 혁신품목 제조 및 재생에너지 생산 관련 녹색금융 투자 집행	· 지속가능금융 상품 확대 및 녹색 투자상품 개발을 통한 투자 기회 다양화
	시장		·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로서 유동성 공급 및 가격 형성 기능 수행 · 기후·ESG·통합 리서치(Carbon Daily, ESG Snapshot 등) 발간을 통한 시장 정보 제공 · 국내 민간 금융기관 최초 GCF 인증기구 지위 획득 및 자발적 탄소시장 진입 기반 마련 · 기후테크·친환경 혁신기업 대상 신기술사업금융 투자 집행	· 리서치 서비스 고도화를 통한 시장 내 정보 제공 역할 강화 · GCF 연계 기후변화 감축·적응 지원 사업 참여 확대 및 수익 창출
	회복 탄력성		· 고탄소 업종 익스포저 축소 및 위치 기반 자산 분산	· SBTi 목표 이행 기반 투자 전략 강화 및 녹색채권·Taxonomy 기반 투자자산 관리

간접적 완화 및 적응을 위한 노력

보고기업은 글로벌 기후 위기 대응에 동참하기 위해 중장기 목표 설정 및 지속가능금융 실천을 위한 다양한 이니셔티브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2020년 CTCN(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 가입 및 탈석탄 금융 선언을 시작으로, 2022년 11월에는 SBTi로부터 감축 목표를 공식 승인받았습니다. 이후 TCFD, TNFD, PCAF, UNEP FI, CDP 등에 순차적으로 가입하며 글로벌 ESG 공시 표준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에는 국내 민간 금융기관 최초로 GCF(녹색기후기금) 인증기구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2025년 4월에는 UN Global Compact에 가입하였습니다.

아울러 기후변화 관련 공공정책 참여 및 대외 소통 활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권사 최초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로 참여하여 유동성 공급 및 가격 형성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환경부 등 정부 주최 간담회를 통해 기후 관련 정책 수립 과정에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탄소 시장 동향 분석 리서치(Carbon Daily, ESG Snapshot 등)를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연기금,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연 15회 이상의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으며, 리투아니아·캄보디아·태국증권거래소 등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글로벌 금융 협력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후 관련 전환 계획

보고기업은 2050년 넷제로(Net Zero) 달성을 목표로 단·중·장기 감축 이행 로드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조치를 우선 이행하고, 잔여 배출량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RE100 이행 수단(재생에너지 구매 등) 참여를 통해 단계적으로 감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환 계획 수립 시에는 국내 배출권거래제 및 NGFS 시나리오 탄소가격을 주요 가정으로 활용하여 기후 시나리오 분석 및 투자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환 계획의 실현은 다수의 외부 의존 요소에 영향을 받습니다. 탈석탄 기조 및 넷제로 달성 목표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석탄발전 축소 및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 등 국가 정책의 이행 여부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며, RE100 이행 계획은 국내 재생에너지 공급망 확대와 BESS(배터리 에너지 저장장치) 등 전력 인프라의 적시 구축을 전제로 합니다. 아울러 투자 포트폴리오(Scope 3) 감축 목표의 실현은 피투자기업의 저탄소 기술 상용화 및 CCS(탄소포집·저장) 등 혁신 기술의 확산 속도에 영향을 받습니다. 보고기업은 이러한 외부 의존 요소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정책·시장·기술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전환 계획을 조정해 나갈 방침입니다.

기후 관련 목표 달성 계획

보고기업은 2022년 SBTi로부터 감축 목표를 공식 승인받아,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연간 목표치에 맞춰 배출량을 측정 및 공시하고 있습니다. 목표 설정 기준연도는 2021년이며, 단기 목표는 Scope 1·2 2030년, Scope 3 2027년, 장기 목표는 2050년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Scope 1·2 배출량에 대해서는 1.5℃ 시나리오에 부합하도록 2030년까지 절대량 42% 감축,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5년 Scope 1·2 배출량은 1,563tCO₂eq로 기준연도 대비 916tCO₂eq를 감축하여 설정된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고 있습니다.

Scope 3 금융배출량에 대해서는 Well-below 2℃ 시나리오에 부합하도록 자산유형별 온도등급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2027년까지 Scope 1+2+3에 대해 상장주식 2.78℃, 회사채 2.82℃, 사모펀드 투자 2.82℃의 온도등급으로 낮추는 것을 단기 목표로 하며, 포트폴리오 전환 및 녹색투자 확대, 피투자기업 대상 ESG 인게이지먼트를 통해 가치사슬 내 탄소중립을 단계적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2.3.2 대응 전략 실행을 위한 자원 조달 계획

보고기업은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 대응 활동을 위한 자원을 재무적·조직적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에너지 효율화 및 녹색금융 관련 투자를 통해 내부 자원을 배분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내부 탄소 가격제를 활용하여 기후 관련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녹색채권·지속가능채권 발행 주관과 GCF 인증기구 지위 활용 등을 통해 기후금융 사업 기회를 확대하고 관련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구분	자금 조달 방안 및 계획	현재 실적
재무적 자원 투입	- 에너지 효율화 활동 및 K-Taxonomy 기준 부합 분야에 대한 내부 자금 직접 투입 - 기후테크 등 친환경 기술 분야 육성을 위한 신기술사업금융 투자 지속 확대	- 에너지 효율화 활동에 18억 1,900만 원 직접 집행 - K-Taxonomy 기준 부합 분야에 총자산의 1.76%에 해당하는 약 1,204억 원 투입 - 약 3,450억 원 규모의 신기술 투자조합 결성·운용 및 초기·성장기업에 대한 투자 및 스케일업 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운영사 참여, 후속 투자(Follow-on) 등을 통해 혁신기업의 성장 지원
녹색채권 및 지속가능채권 발행	- 녹색채권·지속가능채권 발행 주관을 통한 ESG 자금 조달 파이프라인 확충 2030년까지 ESG 채권 주관 규모 매년 5% 이상 성장 목표	2025년 말 기준 누적 약 17조 원 규모의 ESG 채권 주관 실적 보유
내부 탄소 가격제 및 글로벌 기후 자금 활용	- 내부 탄소 가격제 운영을 통한 투자 심사 및 자본 배분 의사결정 고도화 - GCF 인증기구 지위 활용을 통한 글로벌 기후 자금 조달 파이프라인 확보	- 단기·중기·장기 내부 탄소 가격(9,170원/tCO₂eq, 107,238원/tCO₂eq, 596,915원/tCO₂eq) 설정 및 투자 심사 및 자본 배분 의사결정에 반영 - GCF(녹색기후기금) 인증기구 지위 획득
인적·조직적 자원 투입	기후·ESG 전담 조직 운영 및 임직원 역량 강화 체계 지속 고도화	- 기후 및 환경경영 전담 조직인 '지속가능경영부' 및 'ESG Specialist Group' 운영 - ESG Specialist Group 연 10회 전문교육 이행

2.3.3 기 공시된 계획의 진척도

보고기업이 수립한 기후 관련 목표 및 이에 대한 달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기준연도	목표연도	2025년 실적		
Scope 1·2 온실가스 배출량	2021	2030	기준연도 대비 37% 감축(916tCO ₂ eq 감축)		
에너지 사용량	2021	2030	기준연도 대비 38% 감축(9.4TJ 감축)		
Scope 3 SDA 집약도(부동산)	2021	2030	기준연도 대비 89% 감축		
Scope 3 금융배출량 온도등급	2021	2027	상장주식	Scope 1+2	기준연도 대비 30% 감축
				Scope 1+2+3	기준연도 대비 10% 감축
			회사채	Scope 1+2	기준연도 대비 28% 감축
				Scope 1+2+3	기준연도 대비 5% 감축
			사모펀드 투자	Scope 1+2	기준연도 대비 0% 감축
				Scope 1+2+3	기준연도 대비 0% 감축
K-Taxonomy 투자 실적 (투자금액)	2024	2030	전년 대비 3.7배 증가		

기업이 고려한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 간의 상충

보고기업이 고려한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 간의 상충은 '1.1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 관리·감독 의사결정기구' 내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와의 상충 고려' 관련 본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4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

2.4.1 현재 재무적 영향

보고기업은 식별된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 요인이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으며, 보고기간 중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로 인한 현재 재무적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행 위험 측면에서는 탄소가격 상승에 따른 투자기업의 비용 부담 증가가 보유 자산의 신용위험 및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고탄소 섹터에 대한 익스포저가 재무성과의 변동성을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 위험 측면에서는 기후취약 지역 소재 투자자산을 중심으로 기상이변에 따른 담보가치 하락 및 차주 신용위험 확대가 잠재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고기업은 탈석탄 투자지침 및 ESG Checklist 운영을 통해 이러한 위험 요인에 대한 익스포저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회 측면에서는 ESG 채권 시장 확대에 따른 녹색채권 투자 포트폴리오 강화로 이자수익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저탄소 기술 보유 기업에 대한 투자가치 상승으로 투자 수익 증가가 기대되며, 재생에너지·친환경 기업 대상 IB 자문·주선 수수료 수익 확대 및 ESG 등급 향상에 따른 조달비용 절감 등의 재무적 기회 요인도 존재합니다.

당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단위: 억 원)

구분	요인	잠재적 재무영향	계정 과목	영향 금액
				당기('25년)
기회	에너지·자원 효율 개선을 통한 운영비 절감 및 친환경 건물 등 고정자산 가치 상승	본사 건물 에너지 효율화를 통한 전기료·광열비 등 운영비용 절감 가능	-	-
	저탄소 기술 확산에 따른 화석연료 가격 상승 리스크 완화 및 투자 수익 기회 확대	저탄소 기술 보유 기업에 대한 투자가치 상승으로 투자 수익 증가 가능	-	-
	ESG 채권 시장 확대에 따른 녹색채권 투자 포트폴리오 강화 및 이자수익 증가	녹색채권 투자를 통한 상품채권이자 증가	이자수익	17
	신재생에너지 및 친환경 기술 관련 기업 수요 증가에 따른 시장 기회 확대	재생에너지·친환경 기업 대상 IB 자문·주선 수수료 수익 증가 가능	-	-
	복원력 강화 노력을 통한 시장 가치 상승 및 관련 솔루션·서비스 수요 확대	ESG 등급 향상에 따른 조달비용 절감 및 자금조달 여건 개선 가능	-	-

차기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 및 기회

보고기업이 식별한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 중 차기 회계연도 내 자산·부채의 장부금액에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유의적 요인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보고기업은 탈석탄 투자지침 및 ESG Checklist 운영을 통해 기후 관련 고위험 자산에 대한 익스포저를 관리하고 있으며, 기후 시나리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의 잠재적 재무영향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후 관련 규제 환경 변화, 탄소가격 경로의 불확실성, 기후현상의 빈도 및 강도 증가 등 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 재무적 영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향후 중요한 영향이 발생할 경우 관련 공시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입니다.

2.4.2 예상 재무적 영향

보고기업은 식별된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 요인이 향후 재무성과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있으며, 이행 위험과 물리적 위험 모두 중장기적으로 재무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행 위험 측면에서는 탄소 규제 강화 및 탄소가격 상승에 따라 고탄소 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가치 변동 가능성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보고기업은 탈석탄 투자지침에 따라 고탄소 자산 익스포저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만기 도래 자산을 저탄소 자산으로 순차 전환함으로써 잠재적 손실 위험을 선제적으로 완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물리적 위험 측면에서는 기후취약 지역 소재 투자자산을 중심으로 담보가치 하락 및 차주 신용위험 확대가 중장기적으로 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회 측면에서는 K-Taxonomy 기반 녹색금융 투자 확대를 통해 이자수익 등 안정적 수익원을 확충하고, BESS·SMR·데이터센터 등 에너지·전력·인프라 전환금융 딜 확대에 따른 수수료 수익 성장과 기후테크 분야 신기술사업금융을 통한 투자 수익 다각화가 기대됩니다.

대응 전략의 실행을 고려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의 예상 변화

단기적으로는 기후 위험 관리 고도화 및 ESG 공시 데이터 시스템 구축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직접적인 수익 창출보다는 중장기 기후 위험 관리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선행적 지출로서, 향후 규제 강화 및 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중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 구매로 인한 자본적 지출이 증가하는 한편, ESG 금융 분야에서의 성장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기후 관련 기회를 실질적인 수익 기반으로 전환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저탄소 전환 및 저탄소 금융 포트폴리오로의 구조적 재편을 통해 기후 규제 강화에 따른 좌초자산 위험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장기적 재무 안정성을 확보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환 계획의 이행을 위한 자금은 영업활동에서 창출되는 내부 현금흐름을 기본 재원으로 하며, ESG 채권 발행 등 외부 자금을 병행 활용할 계획입니다.

2.5 기후 회복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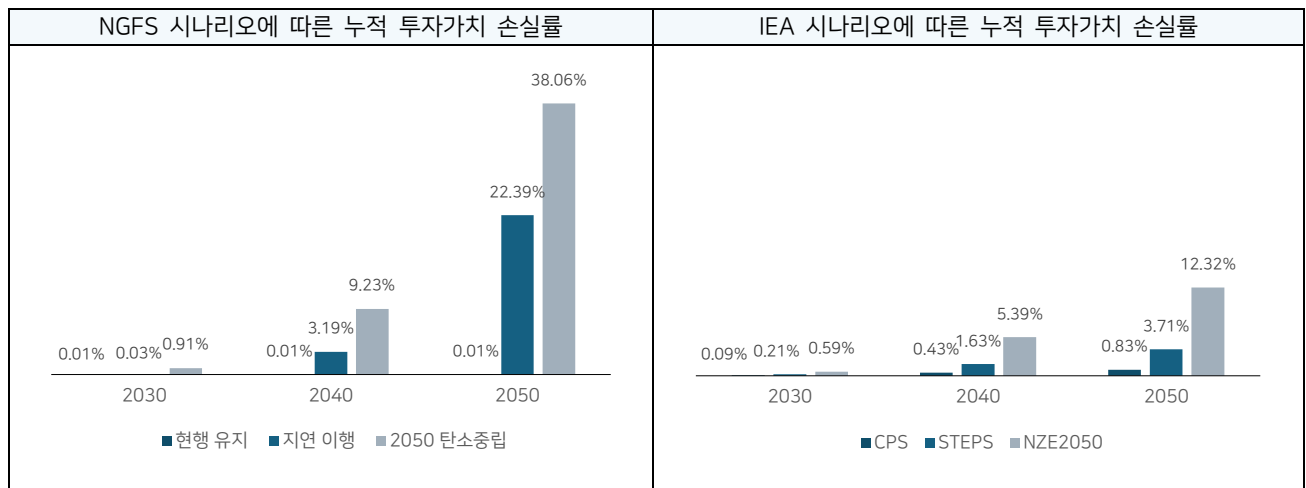
2.5.1 기후 회복력 평가

보고기업은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 및 기회가 포트폴리오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을 평가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기후 시나리오 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고기업은 이러한 시나리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이행 위험과 물리적 위험이 투자 포트폴리오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KSSB 공시기준 권고사항에 따라 단기, 중기 및 장기 기간 구분을 적용하여 분석 범위를 확대하고, 이를 전사적인 기후 위험 관리 및 전략 수립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행 위험에 따른 잠재적 재무 영향 추정

금융기관 특성을 반영한 NGFS 시나리오와 에너지 수요 및 감축 기술 경로를 고려한 IEA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기업금융(주식, 채권, 대출) 자산의 탄소가격 변동에 따른 2050년까지의 재무적 영향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각 시나리오 하에서 포트폴리오의 가치 변동을 산정하였으며, NGFS 시나리오는 비교 가능성이 높은 현행 유지, 자연 이행, 2050 탄소중립 경로를 중심으로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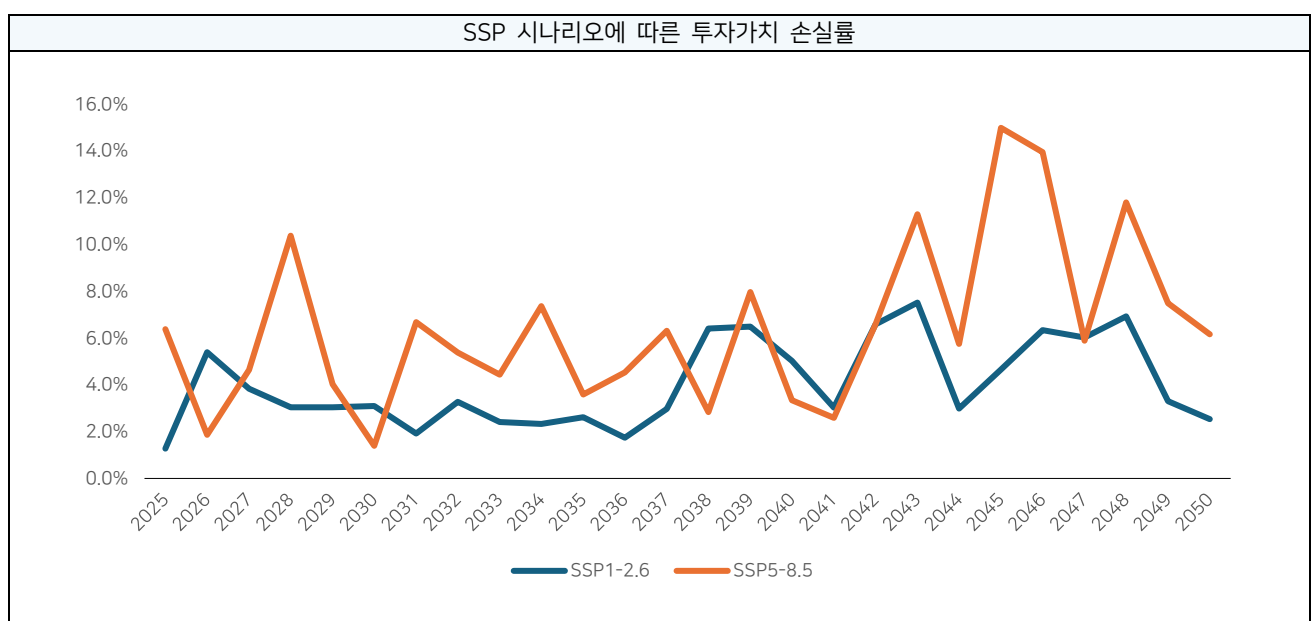
분석 결과, 투자자산의 누적 투자가치 손실률은 2025년 대비 2030년까지 NGFS 시나리오에서는 각각 0.01%(현행 유지), 0.03%(지연 이행), 0.91%(2050 탄소중립), IEA 시나리오에서는 0.09%(CPS), 0.21%(STEPS), 0.59%(NZE2050)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2050년까지 장기적으로 NGFS 시나리오에서는 각각 0.01%(현행 유지), 22.39%(지연 이행), 38.06%(2050 탄소중립), IEA 시나리오는 0.83%(CPS), 3.71%(STEPS), 12.32%(NZE2050)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물리적 위험에 따른 잠재적 재무 영향 추정

IPCC 6차 평가 보고서에서 제시한 SSP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기업금융(주식, 채권, 대출) 자산의 2050년까지의 기후변화 시나리오별 영향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각 시나리오 하에서 포트폴리오의 가치 변동을 산정하였으며, SSP 시나리오는 비교 가능성이 높은 SSP1-2.6과 SSP5-8.5를 중심으로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투자자산의 투자가치 손실률은 2025년 대비 2030년, 2040년, 2050년 각각 SSP1-2.6 시나리오에서는 3.10%, 5.02%, 2.53%, SSP5-8.5 시나리오에서는 6.68%, 2.59%, 4.68%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분석에 고려된 유의적인 불확실성의 영역

보고기업은 분석 과정에서 장기적 지속가능성과 재무적 안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불확실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태풍, 홍수, 산불 등 극한 기상 현상의 빈도와 강도 증가는 투자자산의 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포트폴리오 건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탄소가격 상승, 배출 규제 강화 등 정책·법률 환경의 변화는 탄소집약 산업에 대한 여신·투자 자산의 가치를 훼손하는 좌초자산 위험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글로벌 저탄소 전환 가속화에 따른 시장 변수 변화와 ESG 공시 규제 확대는 투자자 및 고객의 기대 수준을 높이는 한편, 이에 대응하지 못할 경우 평판 위험과 자금조달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보고기업은 이러한 불확실성을 기후 시나리오 분석 및 전사적 위험 관리 체계를 통해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함으로써, 기후변화 속에서도 안정적인 사업 기반과 재무적 회복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존 재무자원의 가용성 및 유연성

보고기업은 기후 관련 전략 실행을 위한 자금 조달에 있어 기존 재무자원의 가용성과 유연성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영업활동에서 창출되는 내부 현금흐름을 기본 재원으로 하여 기후 대응 체계 구축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ESG 채권 발행을 통한 외부 자금조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며, K-Taxonomy 기반 녹색금융상품 운용을 통해 ESG 금융 시장 내 자금조달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존 자산을 재배치, 용도 변경, 개선 또는 해체할 수 있는 능력

보고기업은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투자 포트폴리오의 구조적 재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탈석탄 투자지침 및 ESG Checklist를 통해 기후 관련 위험을 사전에 평가하여 포트폴리오 내 고위험 자산 비중을 관리하는 한편, 탄소집약 자산에 대해서는 만기 도래 시점에 맞추어 저탄소 자산으로의 순차적 전환을 추진함으로써 좌초자산 위험을 선제적으로 완화하고 저탄소 금융으로의 구조적 재편을 실현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및 계획된 투자의 영향

보고기업의 기후 관련 투자는 내부 역량 강화와 외부 시장 확대라는 두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내부적으로는 기후 위험 관리 체계 고도화와 재생에너지 전환 확대를 통해 기후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녹색금융 및 ESG 금융상품 확대를 통해 기후 관련 기회를 수익 기반으로 전환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고배출 업종 투자 감축과 포트폴리오의 저탄소 전환을 단계적으로 완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2.5.2 기후 관련 시나리오 분석 수행 방법

보고기업은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를 체계적으로 식별하고 잠재적 재무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기후 시나리오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본 분석은 최신 국제 협약과 과학적 근거를 반영하고 있으며, 주요 투입 변수와 가정 사항을 기반으로 이행 위험과 물리적 위험이 핵심 사업활동과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이행 위험 시나리오 분석에서는 2025년 보고기업이 투자한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탄소가격 경로, 기업가치 및 배출량을 반영하여 이행 위험 기반 누적 손실액을 추정하였습니다. 물리적 위험 시나리오 분석에서는 동일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폭염, 폭우, 산불, 산사태, 폭설 등 5개 재난 유형별 발생빈도를 시나리오별로 예측하고, 자산 위치와 사업활동 데이터를 활용해 물리적 위험 기반 자산 손실액을 추정하였습니다.

이행 위험 시나리오에 사용된 투입변수

구분		주요 내용	
사용 시나리오	NGFS 5차 시나리오	현행 유지 (Current Policies)	기존 정책 외 추가적인 정책이 도입하지 않는 시나리오
		지연 이행 (Delayed Transition)	2030년부터 무질서하게 전환하여 지구 평균온도 2℃ 증가가 예상되는 시나리오
		2050 탄소중립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1.5℃ 이하로 억제하는 시나리오
	IEA 시나리오	CPS (Current Policies Scenario)	현재 확정된 법과 규제만 적용한 에너지 전환 시나리오
		STEPS (Stated Policies Scenario)	현재 시행 중인 정책 및 정부의 공식 선언 목표를 반영한 에너지 전환 시나리오
		NZE2050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필요 정책 및 기술을 반영한 에너지 전환 시나리오
국제 협약 부합 여부		· 기후변화 관한 최신 국제 협약에 부합하는 시나리오	
투입변수 및 데이터 원천		· 탄소가격 - NGFS, IEA, 국내 배출권거래제 · 국가 2035 NDC - 대한민국 기후에너지환경부 · 피투자기업 배출량 및 기업가치 - 피투자기업 사업보고서	
분석에 사용된 주요 가정		· 2035년 이후부터는 2050년 탄소중립에 맞춰 선형 감축 · 미래 탄소가격 산정 시 할인을 적용 · NGFS 시나리오 탄소가격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2024년 기준으로 설정	
분석 기간		· (기간범위) 2025~2050년, (분석시점) 2025년	

물리적 위험 시나리오에 사용된 투입변수

구분		주요 내용	
사용 시나리오	SSP 시나리오	SSP1-2.6	사회 불균형 감소와 친환경 기술의 빠른 발달로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능력이 좋은 지속가능한 사회경제 구조의 저탄소 시나리오
		SSP2-4.5	기후변화 완화 및 사회경제 발전 정도가 중간인 시나리오
		SSP3-7.0	사회경제 발전의 불균형과 제도적 제한으로 인한 기후변화에 취약한 상태의 시나리오
		SSP5-8.5	기후정책 부재, 화석연료 기반의 성장 및 높은 인적 투자로 인한 기후변화 적응 능력은 좋지만, 완화 능력이 낮은 고탄소 시나리오
국제 협약 부합 여부		· 기후변화 관한 최신 국제 협약에 부합하는 시나리오	
투입변수 및 데이터 원천		· 자연재해(폭염, 폭우, 산불, 산사태, 폭설) - 고려대학교 오정리질리언스 연구원 분석 모형	
분석에 사용된 주요 가정		· 피투자기업의 사업장별 제품 생산량, 온실가스 배출량, 매출액, 사업 특성 등 고려한 위치별 가중치 부여	
분석 기간		· (기간범위) 2025~2050년 · (분석시점) 2025년	

기후 관련 시나리오 분석이 수행된 보고기간

보고기업은 당기 보고기간 내 기후 시나리오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3. 위험 관리

3.1.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 관리

3.1.1 기후 관련 위험 관리 프로세스 및 정책

위험 관리 프로세스에 사용된 투입변수 및 매개변수

보고기업은 기후 관련 시나리오 분석 수행 시 다양한 투입변수와 매개변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분석에 사용되는 데이터는 기업 내부 자료뿐만 아니라 정부, 연구기관, 국제기구 등 신뢰성 있는 외부 출처를 포함하며 이를 통해 탄소가격, 에너지 사용량 등 핵심 지표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기후 관련 재무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투입변수 및 매개변수	사업장 범위	데이터 원천
탄소가격	보고기업	· 대한민국 기후에너지환경부, NGFS, IEA 등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보고기업	· 기업 내부자료, 명세서 등
자산 정보	보고기업	· 기업 내부자료, 연결재무제표
기후 관련 정책	보고기업	· 정부 부처 보도자료, 외부 연구자료
기후 및 산업 동향	보고기업	· 기업 내부자료, 외부 연구자료

위험 관리 통합 프로세스

보고기업은 위험 관리 통합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전사적 차원의 위험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주요 위험 요인을 체계적으로 식별·평가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관리를 통해 위험을 통제하며, 관련 현황을 내부 보고 체계를 통해 관리합니다. 또한 기후 위험을 포함한 주요 위험은 전사적 위험 관리 프로세스 내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되어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됩니다.

구분	내용
식별	· 기후 위험 및 기회 요인 식별 및 잠재적 재무 영향 파악: 위험 및 기회 요인을 구분하고, 이에 따른 잠재적 재무영향을 산정합니다.
	· 위험의 우선 순위 설정 여부 및 방법: 식별 단계에서 도출된 위험에 대하여 발생가능성, 영향도, 취약성, 발생속도 4가지 기준에 따라 중요도를 구분하고 우선 순위를 설정합니다.
평가	· 기후 시나리오에 따른 리스크 평가 및 고위험 영역 설정: NGFS, IEA, SSP 기후 시나리오 분석을 실시하여 다양한 변수와 가정을 반영해 위험 및 기회의 재무적 노출도를 정량적으로 분석합니다. 해당 분석 결과에 따라 고위험 영역을 도출합니다.
모니터링 및 관리	· 업종별 온실가스 집약도 관리: 한국표준산업분류(KSIC)를 기준으로 업종별 온실가스 집약도를 산정·모니터링하여 고탄소 업종을 포함한 포트폴리오의 온실가스 집약도 추이를 관리합니다.
	· 고탄소 업종에 대한 내부 관리 정책 실시: 고탄소 업종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위해 환경·사회(E&S) 정책 및 탈석탄 투자지침을 수립·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ESG 투자 원칙 및 위험 관리 심사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해당 지침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재무적 위험이 높은 고탄소 업종 투자는 제한됩니다.
	· 투자 심사 시 ESG Checklist 적용: 투자심의회위원회에 상정되는 모든 안건에 대해 ESG Checklist를 적용하여 환경·사회 리스크 및 지배구조 요소를 포함한 ESG 항목을 의무적으로 검토합니다. 영업 부서의 1차 작성, ESG담당부서인 지속가능경영부의 검토 및 종합의견을 도출해 투자 심의 안건과 함께 최종 상정되며, 해당 결과는 투자 심의 과정에 반영됩니다. 이와 같은 영업 부서, 심사 부서, 지속가능경영부 및 투자심의회위원회로 이어지는 절차는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 관리 프로세스를 전사적 위험 관리 체계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구조로, 투자 단계에서 위험 및 기회를 사전에 식별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보고	· 온실가스 집약도 및 관련 투자 현황을 실무진 및 경영진에 정기적으로 보고합니다.

위험 식별 시 시나리오 사용 여부 및 분석 방법

보고기업은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 및 기회와 금융시스템으로의 파급경로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잠재적 재무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기후 시나리오 분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NGFS, IEA, SSP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탄소가격, 정책 변화, 기후변화 경로 등 다양한 변수와 가정을 반영해 기후 위험이 사업 운영 및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합니다.

또한 위험 요인 식별 이후 기후 시나리오 분석을 수행하여 이행 위험 및 물리적 위험에 대한 노출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해 고위험 영역을 설정합니다. 해당 영역은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관리 대상에 포함되며, 리스크 변화 추이에 따라 대응 전략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합니다.

위험 평가 방법

보고기업은 식별 단계에서 도출된 기후 위험 및 기회 요인에 대해 발생가능성, 영향도, 취약성, 발생속도를 기준으로 중요도를 평가하고 우선순위를 설정합니다. 이후 해당 요인이 투자 포트폴리오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을 NGFS, IEA 및 SSP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각 요인별 노출도를 산출해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위험 모니터링 방법

보고기업은 투자, 프로젝트 파이낸싱, 인수·주선 등 주요 금융활동에 내재된 기후 위험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해 업종별 온실가스 집약도 관리, 고탄소 업종에 대한 내부 관리 정책(탈석탄 투자 지침), ESG Checklist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투자 포트폴리오 전반의 기후 위험을 관리하는 한편, 중장기적인 위험 및 기회를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합니다.

위험 관리 프로세스의 변경사항

보고기간 내 보고기업의 위험 관리 프로세스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3.1.2 기후 관련 기회 관리 프로세스

보고기업은 기후 관련 위험 관리 프로세스와 동일한 절차를 통해 기후 관련 기회를 식별, 평가, 우선순위 설정 및 모니터링합니다.

3.1.3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 관리 프로세스와 전사적 위험 관리 프로세스의 통합

보고기업은 기후변화 대응을 전사적 핵심 과제로 인식하고,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경영 전반에 통합하여 관리합니다. 특히, ESG Checklist를 적용하여 영업 부서, 지속가능경영부, 심사 부서 및 투자심의위원회로 이어지는 투자 심사 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 단계에서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사전에 식별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해당 절차를 통해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는 투자 단계에서 사전에 식별·평가되고, 그 결과는 전사적 위험 관리 기준에 따라 검토되어 최종 의사결정에 반영됩니다. 이와 같은 통합 구조를 기반으로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는 투자 심사 및 위험 관리 체계 전반에 통합되어 관리되며, 의사결정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중장기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강화합니다.

4. 지표 및 목표

4.1 기후 관련 지표

4.1.1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기업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21년부터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과 WRI 및 WBCSD가 제정한 「GHG Protocol」(2004), 「The Corporate Value Chain (Scope 3) Accounting and Reporting Standard」(2011)에 근거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년 Scope 1(직접 배출)과 Scope 2(간접 배출) 및 Scope 3(기타 간접 배출, 카테고리 1, 3, 5, 6) 배출량은 제3자 검증기관을 통해 검증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투자로 인한 금융배출량(Scope 3 카테고리 15)은 PCAF 가이드라인에 따라 산정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고기업은 글로벌 공시 기준에 부합하는 배출량 산정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배출 정보를 일관되게 관리하여 공시의 신뢰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Scope 1·2 온실가스 배출량(지역기반)

(단위: tCO₂eq)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Scope 1	Scope 2	합계	Scope 1	Scope 2	합계	Scope 1	Scope 2	합계
지배회사 ¹⁾	272	1,283	1,555	237	1,262	1,499	214	1,061	1,275
종속회사 ²⁾	46	388	433	45	328	373	35	253	288
합계	317	1,671	1,988	282	1,590	1,871	249	1,314	1,563

1) 지배회사: SK증권(주) 본사 및 전 지점

2) 종속회사 변동내역: (FY2023) 에스케이에스프라이빗에쿼티(주), (주)피티알자산운용, 트리니티자산운용(주), (주)엠에스상호저축은행, (FY2024) 에스케이에스프라이빗에쿼티(주), 트리니티자산운용(주), (주)엠에스상호저축은행, (FY2025) 에스케이에스프라이빗에쿼티(주), (주)엠에스상호저축은행

Scope 3 온실가스 배출량¹⁾

(단위: tCO₂eq)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Category 1. 구매한 제품 및 서비스		13	13	10
Category 3. Scope 1·2 외 연료 및 에너지 관련 활동		105	129	97
Category 5. 폐기물		16	9	5
Category 6. 임직원 출장		48	34	64
Category 15. 투자 ²⁾	기존 ³⁾	386,147	314,000	330,567
	신규	386,147	314,000	695,943
합계	기존 ³⁾	386,328	314,185	330,743
	신규	386,328	314,185	696,119

1) 카테고리 15는 지배회사와 종속회사를 포함하며, 그 외 카테고리는 지배회사만 포함함

(*) 보고기업의 사업 운영상 관련성이 있으며, 중요한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는 카테고리에 대해 산정함

2) 2025년부터 준정부채, 구조화금융, 유동화상품 신규 산정

3) 기존 회사채 자산 중 일부 준정부채로 이동하였으나, 동일 기준 비교를 위해 기존으로 포함

금융배출량

보고기업은 PCAF 가이드라인 Part A를 준수하여, 피투자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EVIC(또는 자기자본+총부채) 대비 보고기업의 투자금액 비중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금융배출량을 정의 및 산정하고 있습니다. 피투자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Scope 1·2·3 배출량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자기자본 투자가 아닌 현금성 자산, 파생상품(선물, 옵션 등), 블라인드 펀드, 중개·주선 및 자문 등은 산정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장주식 및 회사채, 기업대출 및 비상장주식, 프로젝트 파이낸스(PF), 상업용 부동산, 모기지, 자동차대출, 사모펀드 투자, 국채의 8개 자산군별 금융배출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왔으며, FY2025 금융배출량부터 가이드라인 Part A 제3판(2025)을 적용하여 준정부채, 구조화금융, 유동화금융을 추가하며, 산정 범위를 전년 대비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준연도 대비 총투자금액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금융배출량 산정의 기반이 되는 투자 포트폴리오 규모의 확대를 반영합니다. FY2025 기준 총 익스포저는 3.04조 원이며, 이는 보고기업의 총자산의 약 44.3%에 해당합니다. 보고기업의 금융배출량 계산에 포함된 익스포저는 2.92조 원으로, 총 익스포저의 약 96.0%입니다. 금융 배출량 계산에서 제외된 4.0%는 데이터 수집 한계로 인해 배출량이 산출되지 않은 자산입니다.

자산유형별 금융배출량과 익스포저

(1) 자산운용¹⁾

자산유형	2025년					
	금융배출량(tCO ₂ eq)				익스포저(억 원)	
	Scope 1	Scope 2	Scope 3	합계	금액	비중(%)
상장주식 및 회사채	43,199	7,985	147,869	199,053	16,920	58.3%
기업대출 및 비상장주식	317	1,037	9,356	10,710	3,899	13.4%
발전PF	0	0	-	0	0	0.0%
상업용 부동산	21	48	-	68	42	0.1%
모기지	0	0	-	0	0	0.0%
자동차대출	0	0	-	0	0	0.0%
사모펀드 투자	26	35	664	726	23	0.1%
국채	285	-	-	285	12	0.0%
준정부채	183,426	2,104	112,103	297,632	6,714	23.1%
구조화금융	143,477	42,032	-	185,509	1,400	4.8%
유동화금융	0	0	-	0	0	0.0%
합계	370,750	53,242	269,992	693,984	29,010	100.0%

1) SK증권(주), 에스케이에스프라이빗에쿼티(주)

자산유형	2025년			
	집약도(tCO ₂ eq/억 원)	PCAF 데이터 점수		
		Scope 1	Scope 2	Scope 3
상장주식 및 회사채	12.0	2.62	2.62	3.13
기업대출 및 비상장주식	2.7	4.31	4.31	4.31
발전PF	-	-	-	-
상업용 부동산	1.6	4.00	4.00	-
모기지	-	-	-	-
자동차대출	-	-	-	-
사모펀드 투자	31.8	4.05	4.05	4.05
국채	24.4	1.00	-	-
준정부채	44.3	2.41	2.64	3.28
구조화금융	132.5	2.14	2.14	-
유동화금융	-	-	-	-
합계	23.9			

(2) 저축은행²⁾

자산유형	2025년					
	금융배출량(tCO ₂ eq)				익스포저(억 원)	
	Scope 1	Scope 2	Scope 3	합계	금액	비중(%)
상장주식 및 회사채	0.00	0.03	0.17	0.20	1	0.3%
기업대출 및 비상장주식	161	69	1,729	1,959	207	99.7%
발전PF	0	0	-	0	0	0.0%
상업용 부동산	0	0	-	0	0	0.0%
모기지	0	0	-	0	0	0.0%
자동차대출	0	0	-	0	0	0.0%
사모펀드 투자	0	0	-	0	0	0.0%
국채	0	0	-	0	0	0.0%
준정부채	0	0	-	0	0	0.0%
구조화금융	0	0	-	0	0	0.0%
유동화금융	0	0	-	0	0	0.0%
합계	161	69	1,729	1,959	207	100.0%

2) (주)엠에스상호저축은행

자산유형	2025년			
	집약도(tCO ₂ eq/억 원)	PCAF 데이터 점수		
		Scope 1	Scope 2	Scope 3
상장주식 및 회사채	0.3	4.00	4.00	4.00
기업대출 및 비상장주식	9.5	4.08	4.08	4.08
발전PF	-	-	-	-
상업용 부동산	-	-	-	-
모기지	-	-	-	-
자동차대출	-	-	-	-
사모펀드 투자	-	-	-	-
국채	-	-	-	-
준정부채	-	-	-	-
구조화금융	-	-	-	-
유동화금융	-	-	-	-
합계	9.4			

GICS 산업분류	2025년					
	금융배출량(tCO ₂ eq)				익스포저(억 원)	
	Scope 1	Scope 2	Scope 3	합계	금액	비중(%)
에너지	0	0	0	0	0	0.0%
소재	0	0	0	0	0	0.0%
산업	107	3	304	414	2	1.2%
임의소비재	18	24	882	924	57	27.4%
필수소비재	0.00	0.03	0.17	0.20	1	0.3%
헬스케어	16	5	331	352	30	14.5%
금융	1	2	40	43	17	8.4%
정보 기술	0	0	0	0	0	0.0%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0	0	0	0	0	0.0%
유틸리티	0	0	0	0	0	0.0%
부동산	18	35	172	226	100	48.2%
합계	161	69	1,729	1,959	207	100.0%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방법

보고기업은 운영통제(Operational Control) 접근법을 적용하여 연결 기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Scope 3 배출량은 가치사슬 내 데이터의 가용성 및 품질 수준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일부 항목에는 추정치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보고기업은 향후 Scope 3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투입변수 및 가정에 대한 검증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내부 관리체계를 고도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투명한 정보를 공시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적용한 기준 및 지침, 투입변수 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기준 및 지침
Scope 1·2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 ISO 14064-3(2019) · 「GHG Protocol」(2004) · 「IPCC Guidelines」(2006)
Scope 3	· 「The Corporate Value Chain (Scope 3) Accounting and Reporting Standard」(2011) · ISO 14064-3(2019) · 「PCAF The Standards Part A Third Edition」(2025)

구분		투입변수 및 가정
Scope 1	고정연소	· 활동자료: 도시가스(LNG), LPG, 등유 사용량 · 발열량: 연료별 국가 고유 발열량 적용 · 배출계수: 2006 IPCC 국가 인벤토리 가이드라인 배출계수 · 가정/우선순위: 실데이터 우선(없을 시, 면적 원단위 활용)
	이동연소	· 활동자료: 휘발유, 경유 사용량 · 발열량: 연료별 국가 고유 발열량 적용 · 배출계수: 2006 IPCC 국가 인벤토리 가이드라인 배출계수 · 가정/우선순위: 실데이터 우선(없을 시, 면적 원단위 활용)
Scope 2	외부 전기	· 활동자료: 전기 사용량, 전기자동차 충전 요금 · 배출계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시 2023년 전력 배출계수 · 가정/우선순위: 실데이터 우선(없을 시, 면적 원단위 활용)
Scope 3	1. 구매한 제품 및 서비스	· 활동자료: 구매한 상품 및 서비스 관련 구매량, 구입액 등 · 배출계수: 국내 환경성적표지 평균 LCI DB · 가정/우선순위: 실데이터 우선(없을 시, 관련 통계 자료 활용)
	3. Scope 1·2 외 연료 및 에너지 관련 활동	· 활동자료: 연료 사용량(전기, LNG 등) · 배출계수: 국내 LCI DB 환경성적표지 평가계수
	5. 폐기물	· 활동자료: 폐기물 관련 처리유형별 폐기물 총량 등 · 배출계수: 국내 LCI DB 환경성적표지 평가계수 · 가정/우선순위: 실데이터 우선(없을 시, 관련 통계 자료 활용)
	6. 임직원 출장	· 활동자료: 출장별 운송수단, 이동거리, 인원 등 · 배출계수: 저탄소형 녹색가이드라인, 항공 탄소배출계수 등 · 가정/우선순위: 실데이터 우선(없을 시, 관련 통계 자료 활용)
	15. 투자	· 활동자료: 피투자기업 온실가스 배출량, 투자비중 · 배출계수: PCAF 제공 배출계수, 국내 부동산 통계, 국가 GDP 통계 등

4.1.2 기후 관련 위험에 취약한 자산 또는 사업활동

이행 위험

보고기업은 이행 위험에 취약한 자산을 파악하기 위해 투자 포트폴리오 내 고탄소 업종에 대한 익스포저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탈탄소화 접근법(SDA: Sector Decarbonization Approach)에 따라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발전, 제지, 교통, 상업용 부동산 등 온실가스 고배출 업종을 선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해당 업종에 대한 투자 잔액 및 비중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2025년 말 기준 해당 업종의 투자금액은 1,759억 원으로, 총 익스포저의 5.8%를 차지합니다.

물리적 위험

보고기업은 기후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투자자산의 물리적 위험을 식별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기 보고기간 기준으로 물리적 위험에 취약한 자산의 장부금액 및 비중을 정량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보고기업은 향후 기후 시나리오 분석 체계와 자산별 위치 데이터를 연계하여 물리적 위험 노출 자산의 금액 및 비중을 체계적으로 산정하고 공시할 수 있도록 분석 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4.1.3 기후 관련 기회에 부합하는 자산 또는 사업활동

보고기업은 녹색금융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기회 요인을 발굴하고, 나아가 탄소중립 달성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최신 개정본('25.12) 기준에 부합하는 투자 규모가 총 약 1,204억 원으로 집계되었으며, 전년 대비 투자 규모와 건수 모두 확대되었습니다. 투자 구성을 살펴보면, 전환 부문 온실가스 감축 분야가 약 300억 원(24.9%)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생물다양성 보전 분야가 약 298억 원(24.8%)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녹색 부문 온실가스 감축 분야는 약 251억 원(20.8%)으로 세 번째로 높은 비중을 기록하였으며, 공통 분야(13.5%), 오염 방지 및 관리(8.3%), 순환경제로의 전환(7.7%) 순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사모펀드, 주식, 채권 등의 자산군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기회가 집중된 분야에 균형 있게 투자하였습니다.

향후 K-Taxonomy 기반 녹색투자 모니터링 체계를 고도화하고, 혁신품목 제조, 재생에너지, 순환경제 등 기후 관련 기회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 규모와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6대 환경목표		자산 및 사업활동	2024년		2025년	
			금액(억 원)	백분율(%) ¹⁾	금액(억 원)	백분율(%) ¹⁾
녹색 부문	공통	혁신품목 제조	96	29.3	114	9.4
		혁신품목 소재·부품·장비 제조	1	0.5	49	4.1
	온실가스 감축	온실가스 감축 핵심기술 활용을 위한 제조	-	-	0.5	0.04
		태양광 기반 에너지 생산	79	24.2	33	2.7
		전기 에너지 저장·전환	-	-	7	0.6
		수소·암모니아 에너지 저장	-	-	1	0.1
		무공해 운송 인프라 구축·운영	-	-	110	9.1
		제로에너지 건축물 또는 녹색 건축물 신규 건설·리모델링 및 취득	6	1.8	100	8.3
	순환경제로의 전환	다회용기 활용	-	-	0.3	0.02
		폐기물 재사용	-	-	0.5	0.04
		폐기물 화학적 재활용	15	4.6	8	0.6
		폐기물 에너지회수	30	9.0	84	7.0
	오염 방지 및 관리	대기오염 방지 및 처리	-	-	100	8.3
	생물다양성 보전	도시 내 생태공간 조성	-	-	298	24.8
전환 부문	온실가스 감축	액화천연가스(LNG) 및 혼합가스 기반 에너지 생산	101	30.9	300	24.9
합계			327	100.0	1,204	100.0

1) K-Taxonomy 관련 투자자산 총액 대비 비중

4.1.4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비한 자본 배치

보고기업의 기후 관련 위험 또는 기회에 대비한 자본 배치 관련 내용은 '2.3. 전략 및 의사결정' 내 '대응 전략 실행을 위한 자원 조달 계획' 관련 본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1.5 내부 탄소 가격

보고기업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 및 기후 시나리오 분석을 위해 국내 배출권거래제의 탄소 가격과 NGFS Net Zero 2050 및 IEA NZE 2050 시나리오의 전망을 반영하여 내부 탄소 가격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단기, 중기 및 장기 내부 탄소 가격은 각각 9,170원/tCO₂eq, 107,238원/tCO₂eq, 596,915원/tCO₂eq입니다.

내부 탄소 가격은 기후 시나리오 분석 및 중장기 전략 수립 과정에서 주요 지표로 활용되고 있으며, 배출권사업 분야의 주요 투자 의사결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고기업은 2021년부터 한국거래소 배출권 시장의 시장조성자로 지정되어 자기자본으로 탄소배출권(KAU, KCU, KOC)을 직접 매매해 시장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배출권사업부에서는 정부의 4차 계획기간 할당량 축소, 시장안정화제도(Market Stability Reserve, MSR) 등을 반영한 추정치와 시장가의 차이를 별도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4.1.6 기후 연계 보상

보고기업의 기후 연계 보상은 '1.1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 관리·감독 의사결정기구' 내 '경영진 성과지표 및 보상 정책' 관련 본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2 기후 관련 목표

4.2.1 기후 목표 관련 정보

기후 목표

보고기업은 기후변화로 인한 사업장 운영 및 규제 위험을 완화하고,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발생하는 금융배출량을 관리하기 위해 SBTi 방법론에 따라 단기 및 중장기 감축목표를 수립했습니다.

(1) Scope 1·2 감축목표

단기적으로 2021년 대비 2030년까지 Scope 1·2 총배출량의 42%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5년 배출량은 1,563톤으로, 2025년 목표치인 2,016톤을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이는 전사적인 에너지 사용량 감소와 최신 전력배출계수 변경의 영향에 따른 것입니다. 향후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 구매 확대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탄소중립 달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단위: tCO₂eq)

지표	목표 유형 및 수준	적용 범위	기준연도	이행실적	이행목표	중간목표	최종목표
			2021년	2025년	2025년	2030년	2050년
Scope 1·2 총 배출량	절대량 목표 / 1.5℃	보고기업 온실가스 배출량 100%	2,479	1,563 (37% 감축) ¹⁾	2,016 (19% 감축)	1,438	0

1) 2025년 목표 감축률 대비 약 2배(198%) 초과 달성하였음

(2) Scope 3 감축목표

단기적으로 2021년 대비 2027년까지 자산유형별로 온도등급 목표를 수립하였고, 매년 포트폴리오 감축목표에 기반하여 온도등급을 산정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5년 이행실적을 살펴보면, 상장주식과 회사채의 Scope 1+2 기준 온도등급이 목표 대비 각각 0.64℃, 0.60℃ 낮은 수준을 기록하며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이는 보고기업의 탈석탄 투자지침 이행 및 ESG 스크리닝 강화를 통한 저탄소 포트폴리오 전환 노력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피투자기업의 간접배출(Scope 3)까지 포함한 온도등급은 목표 수준에 근접하여, 가치사슬 전반의 탄소 감축이 보다 장기적인 과제임을 반영합니다. 보고기업은 피투자기업 대상 ESG 인게이지먼트를 강화하고 저탄소 기업 투자 비중을 확대함으로써 중장기 온도등급 목표를 지속적으로 이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단위: ℃)

지표	목표 유형 및 수준	적용 범위		기준연도	이행실적	이행목표	중간목표	최종목표
				2021년	2025년	2025년	2027년	2040년
Scope 3 온도등급	집약도 목표 / Well-below 2℃	피투자기업 Scope 1+2	상장주식	2.94	2.05	2.69	2.56	1.75
			회사채	3.20	2.29	2.89	2.74	1.75
			사모펀드 투자	3.20	3.20	2.89	2.74	1.75
		피투자기업 Scope 1+ 2+3	상장주식	3.14	2.84	2.90	2.78	2.00
			회사채	3.20	3.03	2.95	2.82	2.00
			사모펀드 투자	3.20	3.20	2.89	2.82	2.00

(단위: tCO₂eq/m²)

지표	목표 유형 및 수준	적용 범위	기준연도	이행실적	이행목표	중간목표	최종목표
			2021년	2025년	2025년	2030년	2035년
Scope 3 SDA 집약도	집약도 목표 / 1.5℃	부동산	0.55	0.06	0.37	0.18	0.10

기후 목표의 최신 국제 협약 및 관할 구속력 연계성

보고기업은 기후 목표 설정 시 SBTi 기준을 준용하고 있고, 이는 파리협정에도 부합합니다. 또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및 국내 공시 기준인 KSSB(Korea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를 반영하여 목표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4.2.2 기후 목표 설정 및 모니터링 방법

설정된 목표의 제3자 검증 여부 및 목표 검토 프로세스

보고기업은 2022년 Scope 1·2는 1.5°C, Scope 3는 Well-below 2°C 수준의 단기 감축목표에 대해 SBTi의 공식 승인을 받았으며, 제3자 검증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해당 목표는 CEO 및 ESG위원회의 승인과 감독 하에 관리되고 있습니다. CEO는 기후 관련 목표를 승인·감독하고 주요 위험과 기회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ESG위원회는 전략의 수립과 이행을 관리하고 감독하고 있습니다.

목표	내용
사업장 온실가스 배출량	2022년 SBTi 승인
금융배출량	2022년 SBTi 승인

목표 달성 진척도 모니터링 지표

보고기업은 목표 달성 진척도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 및 자산유형별 온도등급 및 SDA 집약도를 핵심 지표로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목표 대비 달성률 추이를 공시하여 성과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목표	모니터링 지표
Scope 1, 2 단기 및 장기목표	온실가스 배출량
Scope 3 단기 및 장기목표	SDA 집약도 및 온도등급

4.2.3 기후 목표 대비 성과 정보

보고기업의 기후 관련 목표 대비 기업의 성과는 '2.3 전략 및 의사결정' 내 '기 공시된 계획의 진척도' 관련 본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2.4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 관련 정보

보고기업이 수립한 2050년 탄소중립 달성 목표는 총 배출량 기준의 목표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인정된 온실가스 7종 중 3종(이산화탄소(CO₂), 메탄(CH₄), 아산화질소(N₂O))을 주요 관리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분	온실가스 종류						
범위	CO ₂	CH ₄	N ₂ O	HFCs ¹⁾	PFCs ¹⁾	SF ₆ ¹⁾	NF ₃ ¹⁾
Scope 1	●	●	●	-	-	-	-
Scope 2	●	●	●	-	-	-	-
Scope 3	●	●	●	-	-	-	-

1) 보고기업 사업 특성상 배출이 없음

4.2.5 탄소 크레딧 사용 계획

보고기업은 순배출량 감축을 위해 탄소 크레딧에 의존하지 않으며, 에너지 효율화 및 재생에너지 전력 구매를 통한 직접적인 감축을 우선적으로 이행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모든 감축 활동을 완료하더라도 잔여 배출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2040년 이후 잔여 배출량에 대해 탄소 크레딧 사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Appendix. 제3자 검증 의견서

서문

(주)디엔브이비즈니스어슈어런스코리아(이하, DNV)는 에스케이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 및 연결기준 주요 종속회사¹⁾의 온실가스 성명서에 대해 제3자 검증을 수행하였습니다. 회사는 'ISO 14064-1:2018', 'WRI/WBCSD GHG Protocol: A Corporate Accounting and Reporting Standard', 'The Corporate Value Chain (Scope 3) Accounting and Reporting Standard', 'IPCC Guidelines: 2006'에 근거한 온실가스 성명서를 준비할 책임이 있으며, 온실가스 성명서 내용에 모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DNV는 본 검증 의견서와 관련하여 계약 조건에 따라 검증 계약당사자를 제외한 제3자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2025년 말 기준 주요 종속회사(트리니티자산운용(주)의 경우, 2025.9.29에 매각되었으므로 산정범위에서 제외함)

검증 목적 및 범위

본 검증의 목적은 회사의 온실가스 성명서에 대해 독립된 검증의견을 제시하는데 있으며, 검증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조직경계: 에스케이증권주식회사 및 국내 자회사(에스케이에스프라이빗에쿼티(주), (주)엠에스상호저축은행)
- 운영경계: Scope 1(직접배출), Scope 2(간접배출), Scope 3(기타간접배출: Category 1(용지, 용수), 3, 5, 6)
- 보고대상 기간: 2025.01.01 ~ 2025.12.31

※ Scope3은 SK증권 본사만 보고

검증 방식

본 검증은 'ISO 14064-3:2019'의 검증 원칙과 기준에 따라 제한적 보증수준 하에서 수행되었습니다. DNV 는 회사가 보고한 온실가스 성명서의 완성에 대한 검증 의견을 제시하는데 필요한 정보와 데이터를 얻기 위하여 검증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검증결론은 중요성 평가 기준 5%를 적용하여 의견을 도출하였습니다. 검증 프로세스의 부분으로 다음 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 온실가스 데이터 관리 및 수집, 배출량 산정 및 보고 프로세스의 적정성
- 온실가스 인벤토리는 측정값을 기초로 작성되었으며, 보고된 데이터의 수치를 계산, 추정, 확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유의 한계를 내포하고 있음

결론

회사의 온실가스 성명서와 관련한 정보를 검증기준에 따라 검증한 결과, 부적절하게 산정되거나 중대한 오류를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할 만한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적정' 의견을 제시합니다.

에스케이증권주식회사 및 국내 자회사	직접배출(Scope 1)	간접배출(Scope 2)	기타간접배출(Scope 3)	총 배출량
	248.824	1,314.135	175.436	1,738

※ 상기의 '총배출량'은 소수점 처리로 인해 직접 및 간접 배출량 합산 값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2026년 4월 30일

대표이사 이장섭
(주)디엔브이비즈니스어슈어런스코리아

에스케이증권주식회사 및 연결기준 주요 종속회사의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 2)

회사명	직접배출(Scope 1)	간접배출(Scope 2)	총 배출량(tCO ₂ eq)
에스케이증권주식회사	213.514	1,061.408	1,275
에스케이에스프라이빗에쿼티(주)	26.623	10.817	37
(주)엠에스상호저축은행	8.688	241.911	251
총 배출량	248.824	1,314.135	1,563

※ 상기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정수로 보고하기 위한 반올림치리로 인해 ±1tCO₂eq 미만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에스케이증권주식회사의 온실가스 배출량(Scope 3)

기타간접배출(Scope 3)		총 배출량(tCO ₂ eq)
업스트림	Category 1 구매한 제품 및 서비스	9.922
	Category 3 Scope 1, 2에 포함되지 않은 연료 및 에너지 관련 활동	97.339
	Category 5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4.636
	Category 6 임직원 출장	63.539
총 배출량		175

※ 상기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정수로 보고하기 위한 반올림치리로 인해 ±1tCO₂eq 미만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Appendix. SK증권 기후 관련 이니셔티브 참여 현황

이니셔티브		참여 현황	
	CTCN	2020.06	CTCN 가입
	SBTi	2020.11	SBTi 참여 선언
		2022.11	SBTi 감축목표 승인 (국내 증권사 최초)
	UNFCCC	2021.03	UNFCCC 발급 탄소배출권(i-KOC) 획득 (국내 금융권 최초)
	TCFD	2022.12	TCFD 지지 선언 및 TCFD 보고서 2022 발간 (국내 증권사 최초)
		2023.09	TCFD 보고서 2023 발간
	PCAF	2023.05	PCAF 가입 (국내 증권사 최초)
	UNEP FI	2023.05	UNEP FI 가입 및 PRB 서명 (국내 증권사 최초)
	CDP	2023.07	CDP 가입
		2023.09	CDP 공시 시작
	GCF	2023.10	GCF 인증기구 지위 획득 (국내 민간금융 최초)
	TNFD	2024.01	TNFD 가입 (국내 증권사 최초)
		2025.05	생물다양성 보고서 발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내 통합 수록)
		2025.12	자연자본 공시 보고서 2025 발간 (국내 증권사 최초)
		2026.05	TNFD 권고안 기반 생물다양성·자연자본 정보 공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내 통합 수록)



발행일: 2026년 6월

발행부서: SK증권 지속가능경영부

홈페이지: www.sks.co.kr